

은혜한인교회 40년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

은혜 40년사 출판기념 감사예배 드리고 싸인회 가져

올해로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가 ‘은혜 40년사’를 출간하고 감사예배 및 싸인회를 가졌다.

지난 22일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예배에는 영 김 연방하원위원을 비롯해 플러턴시 프레드 정 시장, ABC교육위원 유수연 의원, 국제총회 총회장 박병섭 목사, OC기독교연합회 회장 심상은 목사, OC한인회 강석도 회장, OC장로협의회 회장 김생수 장로 등 정계 인사와 교계 및 사회 단체장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꿈을 꾸고, 이루며 땅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은혜 40년사’는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와 영광의 순간들을 한데 엮었다.

시대와 사역별로 정리된 ‘은혜 40년사’는 은혜한인교회의 비전과 선교 철학을 소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선교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담았다.

산상기도회, 테이프선교와 같은 개척 초기의 사역부터 소련 대형집회와 성전 구입 비전, 미라클센터 입당 등 40년 동안 은혜한인교회와 함께 했던 믿음의 이야기들을 생동감 있게 소개하고 있다.

또 세계선교 현황과 선교지, 차세대 사역, 목회팀과 부서 소개, 다양한 기관 사역 안내



은혜 40년사 출판 감사예배에서 설교하는 한기홍 목사 ©기독일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으로 역사를 돌아볼 수 있게 했다.

캘리포니아 플러턴에 위치한 은혜한인교회는 1982년 1대 김광신 목사가 세 가정 중심의 “땅끝까지 복음 전파”라는 선교 비전 아래 개척을 시작한 이래 2003년까지 22년간 부흥을 주도해 왔고, 2004년 2대 한기홍 목사 취임 이후 오늘날까지 성도 수 5천여 명의 대형교회로 꾸준히 성장을 계속해 왔다.

은혜한인교회는 전 세계 57개국에 329명의 선교사 파송, 20개국에 21개 신학교를 설립하는 등 ‘선교 지향적’ 교회라는 평가를 받

고 있으며, 단일교회로서는 가장 많은 교회를 선교지에 개척했다.

플러턴의 작은 미국교회에서 개척, 22년 동안 자체 성전 없이 놀목 학교 강당, 멜로디랜드 미국교회, 이스트 사이드교회를 전전하면서도 헌금의 50%를 선교비로 후원해왔다.

2000년 현 교회의 부지를 구입하고 2003년 미라클센터 기공과 함께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교육관과 체육관, 선교센터와 세계기도센터, 비전센터 등이 건립돼 선교 사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한기홍 목사는 “은혜한인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교회

가 된다’는 비전 아래 ‘선교는 기도, 선교는 전쟁, 선교는 순교’라는 표어를 내걸고 지금까지 복음 전파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작은 한인미션교회로 시작된 은혜한인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전세계 방방곡곡에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목사는 이어 “지난 40년은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기간이었다”며 “세계 선교 마무리의 꿈을 꾸고 이루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축사를 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국제총회장 박병섭 목사는 “복음전파를 위한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아름다운 땅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이렇게 책으로 출간되어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축사한 영 김 연방하원 의원은 “은혜한인교회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신앙인으로 양육시켰을 뿐 아니라 이웃교회를 돕고 교회 시설물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지역사회 섬김에도 모범을 보여줬다”며 “특히 은혜한인교회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비롯해 한인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원의 되겠다”고 전했다. 김동욱 기자



노스캐롤라이나주 가너에 위치한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 본부.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속한 교회의 3분의 1이 동성애 논쟁

노스캐롤라이나 교회 249곳, 동성애 문제로 UMC 탈퇴

을 이유로 교단을 탈퇴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UMC 노스캐롤라이나 연회는 지난 19일 특별회의에서 교단 탈퇴를 원하는 249개 교회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의원 중 찬성 957표, 반대 165표로 탈퇴를 승인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탈퇴한 교회 수는 지역 교회의 32%, 회원 교인의 약 22%에 해당된다.

이 회의는 장정과 10월 총회관리위원회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교회의 탈퇴 요청을

비준하기 위해 소집됐다.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적격 교인 3분의 2의 동의와 연회 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탈퇴는 계약을 모두 이행한 교회에 한해 오는 12월 31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감독인 레오나드 E 페어리는 성명에서 “미래는 밝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사안하기에 그러하다”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해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다.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서로를 소중히 여기길 당부한

다”고 밝혔다.

탈퇴한 교회 중 UMC에 남길 원하는 교인들은 노스캐롤라이나 연합감리공동회(United Methodist Collective)와 연결돼 목회적 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다.

249개의 노스캐롤라이나 교회가 탈퇴한 것 외에도, 올해 초 서부 노스캐롤라이나 연회의 990개 교회 중 41곳이 UMC 탈퇴를 결의했고, 최소 7개 교회가 탈퇴를 위한 식별 절차를 시작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7 Day 24hours (213)400-6363

미국 ↔ 한국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 / 부동산법 ■ 뱅크럽시 ■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 대면·전화상담 예약 | 213.820.3704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가동지, 보내지지, 동등지!”
나성순복음교회
LA FULGospel Church

이영훈 목사 초청
LA 축복성회

2022년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 본당

| 강사 | **이영훈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당회장

주 소 |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전화번호 | (323) 913-4499 / F. (323) 913-4494

홈페이지 | www.lafgc.com
이 메 일 | lafgcusa@yahoo.com

미주장신대 · 청운대학교 MOU 체결

남가주교협

제53차 총회, 신입회장 신승훈 목사 선출

남가주 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남가주교협)는 지난 28일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제5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입회장으로 신승훈 목사를 수석부회장에 최영봉 목사를 선출했다.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신승훈 목사

남가주교협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신승훈 목사는 이날 한국 방문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신입회장을 대신해 인사한 수석부회장 최영봉 목사는 “남가주교협이 어려운 시간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데, 교협이 갱생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수고한 전임 김용준 회장과 임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남가주교협은 신입 신승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임원진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교협 정상화와 교계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정관개정을 통해 그동안 교협 내 불협화음을 일으켜 왔던 상임이사제도를 폐지했으며, 대신 일반이사회를 조직해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협을 대상으로 법정에 고소·고발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교협을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총회에 참석한 류당렬 목사는 “남가주교협의 위상이 쇠신되어서, 남가주 모든 교회와 성도들, 교계 동역자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교협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며 “교계의 부흥과 화합의 발판을 마련하는 교협이 되어 달라”고 기대했다.

1부 예배는 최영봉 목사의 사회로 한기형 목사가 “주께서 강립하실 때”(살전5:23)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류당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기형 목사는 “남가주교협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남가주의 많은 교회들이 교협으로부터 힘을 얻기를 바란다”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께 칭찬 받는 단체가 되자”고 설교했다. 김동욱 기자

글로벌 교육시대, 신학대와 일반대간 교육 정보 자원 교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 이하 미주장신대)와 청운대학교(총장 이우중 박사)가 지난 9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동 발전과 협력을 약속했다.

두 교육기관은 향후 공동 학술연구 프로젝트를 비롯해 강의와 학술토론회, 평생교육연구 및 학생교류, 현장학습 지원 등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이번 MOU를 통해 미주장신대는 청운대에 신학과 종교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청운대는 미주장신대에 일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평생교육원 운영에 대한 실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관련 정보와 자원을 교류하게 된다.

이상명 총장은 “혁신적인 교육 비전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청운대와 미주 지역 신학교육기관인 미주장신대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팬데믹 이후 가속화 된 교육혁명의 시대에 두 교육기관이 파트너십을 통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면서 심각한 도전과 위기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청운대학교 대학본부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서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좌) 청운대 이우중 총장(우)이 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청운대학교는 1995년에 제11대 국회의원 겸 충남방직 회장이었던 이종성 박사가 ‘충남산업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한 후, 1998년 7월 1일 청운대학교로 교명을 새롭게 했다. ‘인의(仁義), 예지(禮智), 신애(信愛)’를 교훈으로 본교는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에도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은 약 7,600여 명으로 인천을 포함

한 수도권 지역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청운대학교 홍성캠퍼스에는 학부 과정 6개 대학, 인천캠퍼스에 2개 대학이 설립되어 있으며(2021년 기준), 각 단과대학에 맞게 학과가 편제되어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대학은 재직자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부의 평생교육체제지원사업(LiFE)으로 이뤄지고 있다.

김동욱 기자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LA 축복성회 인도

남가주 한인교계에 성령의 부흥 기대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LA 을축복성회가 12월 4일(주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에서 열린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침체된 남가주 한인교계에 성령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는 순복음세계



이영훈 목사

선교회 이사장이기도 한 이영훈 목사의 LA 방문 일정에 맞춰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영훈 목사는 12월 5일(월) 오전 10시 30분에는 베데스다대학교 김판호 총장 취임식에, 당일 오후 5시에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있을 목사 안수식에, 오후 7시에는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제47차 실행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홀러튼장로교회 기독교 사립학교 “Honors Academy” 제1회 교육 세미나 연다

홀러튼장로교회(담임 황인철 목사)는 오는 12월 4일(주일) 오후 4시, 홀러튼장로교회 제1교육관 2층에서 “Honors Academy” 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세미나는 교육과 신앙, 대학입시정보, SAT/ACT, 조기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후에는 주제별 개인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40년 역사를 가진 홀러튼장로교회는 올해 기독교 사립학교인 Honors Academy를 설

립했으며 초대 원장으로는 이치훈 목사가 내정됐다. 이치훈 목사는 20년 이상 미국의 중, 고등학교 교육을 연구하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갖고 있다.

이치훈 목사는 “공교육과 기독교 가치관이 무너져가는 현대의 미국 교육 시스템 가운데 미래의 교회를 이끌어 갈 인재를 키우는 것은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며 “Honors Academy는 지적(Intellectual), 정서적(Emotional), 영적(Spiritual) 능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시켜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낼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Honors Academy는 현재는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업과 대학 진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세미나에 참석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등록비 할인쿠폰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동욱 기자 문의 949) 844-1107



GRACE MISSION UNIVERSITY

2023년 봄학기 개강(2월 6일)



학위과정	교육학 철학박사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차문화학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교차문화(선교학)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CC)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CC)	이벤트 1 Early Bird 장학금 온라인 입학 원서 접수 및 입학 절차를 12월 31일 전에 완료하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특혜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e-Library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LA 확장 강의실 한국어, 영어로 수강 가능 스페인어, 중국어, 인니어 동시통역 수강가능 유학생 1-20 발급 연방정부 및 캘리포니아 학비보조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HD 시스템을 통한 고화질 온라인 강의 실시간 Hybrid 강의 (대면미팅 및 Zoom, Distance)	이벤트 2 학교 소개 설명회 (1차)12월 19일(목) 오후 4시, (2차)1월 17일(화) 오후 4시 * 장소: MC 310 강의실 * 참석하시는 모든 분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드림
		이벤트 3 겨울 릴리 공개 특강 - 1월 9~31일(월,화) 4주 5:00~9:30 pm - 선교와 목회를 위한 웹사이트 제작 - 1월 7일~2월 4일(매주 토요일 9:00am~6:00 pm) - 디지털 목회를 위한 온라인 예배 실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2023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Tel : 714-525-0088(대표) Ext 101

입학문의 Email: admissions@gm.edu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www.gm.edu

OC 교계, 3050 차세대 목회자들과 하나님 은혜 감사

감사의 밤 및 3050 차세대 목회자 리유니온 개최

OC 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OC 목사회(회장 박용일 목사),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OC 장로협의회(회장 김생수 장로), OC 여성목사회(회장 박정희 목사) 등 오렌지카운티 기독교계 단체들이 모여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7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진행된 OC 기독교교계 연합 감사의 밤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목회자들과 사모들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오렌지카운티 지역 3050차세대 목회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선배 목회자들과 교류하며 목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OC 기독교계는 올해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며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3월 평신도들을 위한 조정민 목사 초청 말씀 집회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종식을 위한 기도회, 부활절 연합예배, 4·29 폭동기념 예배, 4/14 어린이 복음화 세미나, 교계 연합 구국기도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6월에는 원로 목회자 위로 감사예배, 세계 기독교 어머니 기도회 창립예배, 청소년 미래와 가정건강회복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 8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OC 교계 연합 감사의 밤 및 3050 차세대 목회자 리유니온 기념촬영 ©기독교일보

월에는 3050 차세대 목회자 초청 다니엘 새벽기도회, OC 영적 대각성 목회자 세미나, 77주년 기념 광복절 연합집회 및 성가제, 미자립교회 및 불우이웃돕기 골프토너먼트, 9월에는 3060 사모블레싱 나잇, 10월에는 다민족연합기도회, 샬렌 전인적 리더십 세미나, 선교사자녀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지난 8월에 진행됐던 OC영적대각성 다니엘 새벽기도회는 앞서 OC 지역 한인 교계단체들이 선정한 21명의 3050차세대 목회자들이 특별 새벽예배를 인도하며 차세대 목회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목회적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OC 영적 대각성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고 최홍주 목사(에브리데이교회), 김한요 목사(베델한인교회),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가 나서 목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목회 방향을 제시했다.

OC 기독교교회협의회 심상은 목사는 “올해는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한 해였다”며 “OC 교계가 함께 연합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년에도 교계가 더욱 사랑으로 협력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OC 교계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심상은 목사의 사회로 정창섭 장로의 기도예배에 이어 한기홍 목사가 “항상 기뻐하라”(살전 5:16)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한기홍 목사는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이 되자”고 독려했다.

김동욱 기자

남가주밀알선교단 봉사자 34명, 대통령 자원봉사상 수상



대통령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남가주밀알선교단 봉사자들

남가주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 사랑의교실에서 봉사하는 고등학생들이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자원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난 19일 새영교회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금상 8명, 은상 11명, 동상 15명 등 총 34명의 학생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봉사상을 수상했다.

이종희 목사는 “공부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시간과 정성을 들여 장애인들을 섬긴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기에 오늘의 밀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격려했다. 지난 펜데믹 기간 각 브랜치별로 열리던

대통령 자원봉사상 시상식은 올해는 3년 만에 대면으로 치러져 기쁨을 더했다.

한편 밀알 사랑의교실(Class AGAPE)은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는데, 수업료 및 기타 부대비용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현재 OC, LA, 동부 LA, 엘바인, 토렌스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교실이 열리고 있고, 산타페 스프링스에 위치한 밀알 사무실에서는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사랑의교실이 매주 진행되고 있다.

김동욱 기자

신학생 · 전도사 · 강도사 대상, 유한양행 전녹용 마일드 무료 증정

유한양행 뉴오리진 미주 총판 셀리온 화장품이 현재 신학교 재학생, 전도사, 강도사들에게 유한양행 전녹용 마일드(판매가 150불 상당) 1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올해 성탄을 맞아 감사와 격려의 의미로 마련된 이번 나눔은 12월1일(목)부터 10일(토)까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 셀리온 매장(928 S. Western Ave #254 Los Angeles, CA 90006)에서 진행된다.

재학생, 전도사, 강도사들은 신학교 학생증 또는 본인의 이름이 기록된 시무 교회 주보 및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한편 셀리온 화장품은 전 올리브나무교회를 담임했던 김창현 목사 가족이 운영하는 크리스천 기업이다.

김동욱 기자

전성진 교수 찬송교실, 2022 크리스마스 콘서트 개최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로렘장로교회

전성진 교수 찬송교실은 오늘 12월 11일(주일) 오후 5시, 로렘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에서 2022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

최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는 무료 찬송 교실 3기 수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한편 전성진 교수 찬송교실은 무료로 찬송가를 중심으로 배우는 성악 클래스로 16주를 한 학기로 한 주에 2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정확하고 최고로 빠른 리페! 5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의 진료 수준 별 5개의 최우수 등급 메디칼 그룹!

시니어분들이 건강 영웅! 서울메디칼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TEL 213.389.0077 • 800.611.9862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투임을 알려드립니다.

“故 김선도 목사, 웨슬리 정신 전 세계에 불러 일으킨 분”

28일 광림교회서 장례예배 거행돼

故 김선도 감독 장례예배가 28일 오전 광림교회(담임 김정석 목사) 본당 대예배실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장(葬)으로 드려졌다.

이날 예배는 이기복 감독(기감 남부연회 16대 감독)의 기도, 김학중 감독(경기연회 15대 감독)의 성경봉독, 광림교회 연합 성가대의 조가(어찌 날 위함이온지), 이철 감독회장의 설교, 장세근 장로(광림교회 장로회 회장)의 약력낭독, 추모영상 시청, 조사, 유족 대표 인사말, 광고, 폐회찬송, 김진호 감독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하나님께서 올라간다 하라”(요 20:16-18)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철 감독회장은 “김선도 감독님은 전쟁과 가난, 그리고 고난과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포했다”며 “그리고 긍정과 시들지 않는 희망을 선포함으로써 넘어졌던 자는 일어섰고, 포기하려다가 다시 회복하고, 깨졌던 사람은 치유되고 희망을 잃었던 사람은 희망을 다시 갖도록 하는 메시지를 광림을 통해 이 백성 모두에게 선포했다”고 했다.

이어 “두 번째로 교역자들에게 있어 새로운 통찰력을 갖고 목회의 새로운 비전을 열어주는 모델로 우리에게 남아 계신다”며 “교회를 한 지역의 교회로서만 부흥시키지 않고, 한국교회 속에 교회의 부흥을 그리고 마



故 김선도 감독 장례예배가 광림교회 본당에서 진행됐다.

침내 세계 교회 속에 교회의 부흥을 일으킨 모델로 우리에게 남아 계신다”고 했다.

또 “세 번째로 한국 감리교회는 김선도 감독님에게 많은 빛을 쬐다. 광림이 광림으로만 남지 않고 한국의 연합을 이끌어가며 깊은 통찰력을 갖고 감리교회의 위상을 한국교회 속에 높여 주셨다”며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한국의 감리교회는 이런 교회라는 것을 깊이 알리고 확장시켰으며, 세계교회 속에 한국 감리교회를 인식시키는데 탁월한 역할을 행사하셔서 한국교회를 세계교회 속에 우뚝 서게 하셨다”고 했다.

그는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의 큰 축복

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것”이라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과거를 추억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미래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며 “김선도 감독은 이 백성에게 희망의 모델이 되었고, 교역자들에게 목회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통찰력 있는 놀라운 지도력을 가지신 분이 되었고, 한국 감리교회에는 광림의 목회와 감독님의 사역을 통해 한국교회를 세워주신 놀라운 어른으로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절망의 세대에 김선도 감독에 이

어 김정석 감독님과 또 다른 세대의 광림이 어두운 절망을 거둬내고 새로운 희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미래를 향해 가게 될 것”이라며 “그 희망은 김선도 감독님이 남겨주신 것이며, 앞으로 이어져 가야 될 한국교회도 그 일을 잊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싸워 이기고 믿음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추모영상에선 레슬리 그리피스 감독(영국 상원의원, 웨슬리채플 감독), 앤드류 몰리 총재(월드비전 총재, CEO), 데이비드 맥앨리스터 윌슨 총장(웨슬리신학교), 미네노 목사(일본 요도바시교회 담임), 에드워드 하가이 감독(UMC 유라시아연회), 스티븐 쿠퍼 목사(웨슬리 채플 담임), 사무엘 폴 밴더(옥스포드신학교대학원 학장), 정희수 감독(미국연합감리회 감독) 등이 추모사를 전했다.

조사 순서에선 먼저, 전용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27대 감독회장)이 “김선도 감독은 감리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지도자이며,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데 역사를 일으킨 분”이라며 “그분의 비전은 웨슬리와 같았고, 이 시대에 웨슬리안이었다”고 했다.

유족을 대표해 이창우 장로(광림교회)가 인사말을 그리고 축도 이후 유족의 헌화, 운구위원의 출관식이 진행됐다.

한편, 이후 하관예배가 장지인 경기도 광주시 광림수도원에서 진행됐다. 장지동 기자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석사, 역사상 처음 입학정원 미달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경쟁률 0.94대 1

국내 최대 교단인 예장 합동 측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2023학년도 목회학석사(M.Div.) 과정 지원자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정원에 미달했다.

최근 해당 과정의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입학정원 343명 중 특별전형 포함 321명이 지원해, 0.9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입학정원 미달에 대해 학교와 교단 내에선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론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대원 입시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자 수는 미달되지 않았으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은 98%에 그쳤다.

총신대 신대원장인 정승원 교수는 “학령 인구가 줄고 교세가 감소하는 등의 환경이 이번 미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이들이 줄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앞으로 입학정원을 줄이는 방안 등 교단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영 기자

150명 교회 부임해 최대 감리교회로... 故 김선도 목사의 여정



故 김선도 목사 ©광림교회

25일 별세한 故 김선도 광림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교계의 애도와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광림교회 5대 담임목사로 부임해 이 교회를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로 성장시킨 고인의 삶을 돌아본다.

김 목사는 1930년 평안북도 선천 출신으로 6.25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으로 징병됐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북한군에서 탈출하며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지나던 국군에게 발견되어 5분 만에 북한 군복에서 국군 군복으로 갈아입게 된다. 고인의 자서전 제목이 기도했던 ‘5분의 기적’이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1971년, 김선도 목사가 담임으로 부임할 당시 광림교회는 150명의 작은 교회였다. 교회는 앞마당을 개조해 월세를 받아 겨우 유지했었고, 성도들에겐 비전과 꿈도 보이지 않았다. 김선도 목사는 ‘매일 전도’, ‘매일 성경 공부’를 외치며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고, 그 결과 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했다.

한국 최초로 ‘총동원 주일’ 행사를 가졌고, 성도들은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신앙을 통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올랐다.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1978년 당시 배나무밭이던 강남 신사동에 새롭게 교회를 건축, 지금의 광림교회가 됐다.

원래 ‘광림’이란 이름은 광희동과 쌍림동 사이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러나 김선도 감독은 성경적 의미를 부여해 광림(光林)이라 명명했다. ‘호렙산에서 타오르는 불꽃’. 성도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생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성장과 성숙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선교 중심의 복음적 교회만이 불안과 두려움의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김 목사는 은퇴 후에도 사명을 위해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광림교회는 “장천(杖泉) 김선도 목사는 교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었다.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는 한국교회에서 그가 걸어온 신앙의 행적과 철학은 큰 도움과 이정표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

송경호 기자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08 Wilshire Blvd, #200, Los Angeles, CA 90010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원로목사 추대 및 담임목사 위임식



원로목사 : 민종기 목사
 위임목사 : 국윤권 목사

▪일시 : 2022년 12월 4일(주일) 오후 3시
 ▪장소 : 충현선교교회 본당
 *본 광고로 초청장을 대신합니다.



충현선교교회 www.choonghyun.or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한국 목회자들 내년 목회 중점 사항 1위는?

목회데이터연구소, 최근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조사 결과 소개

목회자들은 2023년 목회 계획에서 '현장 예배'와 '소그룹'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22일 발표한 주간 리포트 '넘버즈' 제169호에서 한국교회지도자센터가 전국 교회 담임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7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장 예배'(40%)가 2023년 목회 계획에서 중점 강화 사항으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소그룹' 36%로 그 다음이었고, '성인 성도들에 대한 교육 훈련' 29%, '전도와 선교' 29%, '다음세대 교육' 등의 순이었다(1+2순위).

이에 대해 연구소는 "현장 예배는 공동체성 회복과 교회 소속감 강화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전략이라 한다면, 소그룹 전략은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부는 새로운 흐름(트렌드)라 할 것"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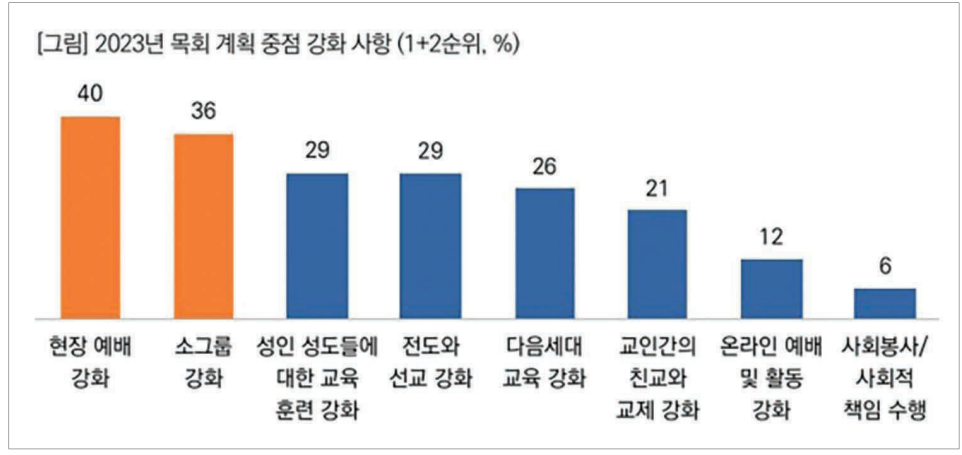
내년도 목회 계획의 중점 강화 사항을 교회 규모(장년 출석교인 수)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5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은 어느 한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현장 예배, 다음세대, 전도·선교 등을 골고루 강화하겠다는 응답

이 높은 반면, 100명 미만 소형교회의 경우 현장 예배나 소그룹 등 선별적으로 집중하겠다는 전략이 엇보인다고 연구소는 전하기도 했다.

연구소는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예배 형태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현장 예배 대신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면, 교회 출석 인원 회복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문제인데 목회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있어서 내년도 목회 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으로 '현장 예배'를 응답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을 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는 찾지 못 하고 현장에서만 얻을 수 있는 즐거움과 유익을 찾아서 그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 출석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방법이 '현장성' 강화이다. 현장 예배를 잘 기획해서 현장 예배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다. 찬양을 집에서 부르는 것보다 교회에서 공동체가 함께 찬양 부를 때 더 진한 은혜와 감동을 느낄 수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소개한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조사 결과 ©목회데이터연구소

있도록 곡 선곡과 반주 그리고 찬양 인도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두 번째는 '관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예배 때 혹은 그 전후에 성도들이 서로 환영하고 환대하며 교제하는 기회와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온라인 속에 숨어있거나 아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인들을 현장예배로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이들을 효과적으로 현장 예배로 오게끔 하는 방법이 '소그룹'"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 소그룹 활동자가 비활동

자보다 현장 예배 참석률이 훨씬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목회자들은 내년 중점 강화 계획으로 소그룹을 두 번째로 꼽았는데 사실 소그룹의 중요성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알려졌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소그룹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이는 열심을 강조하기 보다는 어떤 소그룹을 만들어 낼 것이냐에 고민을 집중해야 효과적인 소그룹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송경호 기자

오정현 · 이찬수 목사 등 750명 “교육과정 개정안 졸속 추진 안 돼”

이들이 서명한 성명서, 의견 제출 마감일인 29일 대통령실에 전달돼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750명이 서명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29일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전국 네트워크'(교정넷)는 교육부가 지난 9일 행정예고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인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교정넷 운영위원)에 따르면 이 성명서에는 종교인 150명을 비롯해 교수 346명, 전현직 총장 9명, 전현직 교장 13명 등 750명이 서명했다.

기독교계에서는 고명진(수원중앙침례교회, 기독교한국침례회 전 총회장)·이재훈(온누리교회,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이사장)·이찬수(분당우리교회)·오정현(사랑의교회)·오정호(새로남교회, 예장 합동 부총회장) 목사 등이 서명했다. 이 밖에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필섭 전 합참의장, 이정미 전 협법재판관 등도 서명에 동참했다.

이들이 서명한 성명서는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수많은 독



김원평 교수(왼쪽)가 '2022 교육과정 개정안'의 졸속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9일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 750명이 서명했다. ©교정넷

소조항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가 아닌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의미하는 '젠더',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괄하는 '섹슈얼리티', 젠더 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동성결혼으로 확대될 '다양한 가족', 프리섹스 의미와 낙태권을 포함하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 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예고안에서 '성평등'이라는 용어는 빠졌다.

성명서에는 "또한, 특정 이념을 가르칠 우려가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윤리 행위까지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다양성 존중 교육,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권교육 등이 교육과정 전반에 퍼져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잘못된 교육을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초·중·고등학생에게 가르치면, 청소년 트랜스젠더 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성명서는 "서구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교

육의 위험성을 뒤늦게 깨닫고 급진적인 젠더 교육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실패한 젠더 교육을 성급하게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2022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해 모든 독소조항을 삭제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특히 "교육부가 독소조항들을 수정하지 않고 개정안을 확정해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통과시킬 것을 심히 우려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2022년 12월 31일이란 법정 고시 시한은 훈시규정에 불복하기에, 그것을 무리하게 지키기 위한 졸속 처리를 반대하며,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논의해서 올바른 교육과정을 만들어 주길 간절히 촉구한다"고 했다.

의견수렴을 마친 행정예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돼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확정·고시한다.

이대웅 기자

CDTV 미주기독일보

YouTube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기독교 정보
기독일보 유튜브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2023년 봄학기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의 한영이중언어과정(KEB)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 등록마감일 : 유학생 11월 1일, 미국거주자 12월 15일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GE)
- 주 소 :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

한영이중언어과정 (KEB,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은

- 한국어와 영어로 진행되는 이중언어 과정입니다.
- 세계 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회가 후원하며 게이트웨이(구, 골든게이트)의 탁월한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이민교회와 더 나아가 세계를 섬기는 역량있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 과정입니다.
- 수업 진행은 대면, 원격,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북미주 최고의 학력 인증 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ATS)와 WASC Senior College and University Commission(WASCU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 후보 되면 지지”

공화당 경선에서는 중립 유지할 계획 밝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복음주의 지도자 중 최초로 예비 선거 기간에 그의 집회에 참석한 로버트 제프리스(Robert Jeffress) 목사가, 2024년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중립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델러스제일침례교회(First Baptist Dallas)를 이끌고 있는 제프리스 목사는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은 내가 원치 않고 참여할 필요도 없는 내전으로 향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올해 66세의 제프리스 목사는 “내 우선순위는 목회를 하고, TV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매주 수백만 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프리스 목사의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계획이라는 최근 발표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에게 이겼으나, 2020년 대선에서는 조 바이든에 패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공화당 후보가 된다면 그를 가까이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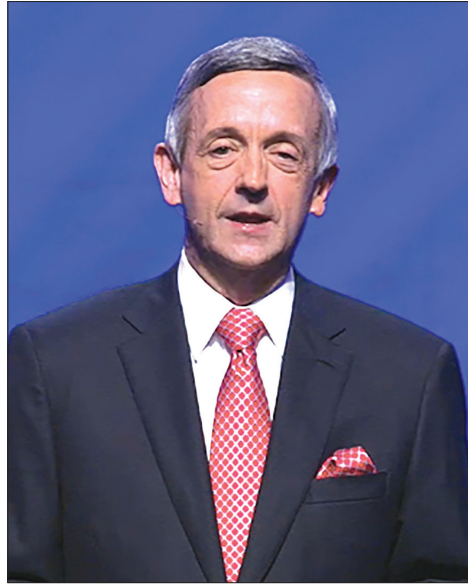
2021년 1월 6일 미국 국회의사당 폭동이 있던 지 며칠 후에도 제프리스 목사는 “트럼프를 지지한 사실을 ‘절대적으로’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제프리스 목사는 당시 자신의 트위터에 “기자가 그를 지지한 것을 후회하느냐고 물었을 때 ‘절대 아니다! (트럼프와 펜스는)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지키고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는 대통령과 부통령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극우 시위대에 대해서는 “비열하다”,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당시 제프리스 목사는 “화난 폭도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것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미국인은 시위를 위해 모일 수 있다. 이것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이다. 평화로운 시위는 우리 정치 전통의 중요한 부분이며, 오랫동안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 폭동에 대응한 방식과 관련해 계속 세밀한 조사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공화당원들이 2024년 대선을 위한 새로운 후보를 찾고 있을 수 있다는 출구조사 결과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동을 조사하는 하원 특별위원회에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온라인으로 참여한 부활절 예배에서 로버트 제프리스 목사가 설교하던 모습. ©생방송 화면 캡처

(YouGo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예비 유권자의 42%는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가 2024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비율은 35%였다.

제프리스 목사는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기 며칠 전 성도들에게 “박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의 능력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젠더 유동성, 동성결혼, 무제한 낙태 등 주변의 모든 상황에서 이를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속을 벗어난 사회의 결과”라며 “앞으로 교회가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조차 다스리신다. 어떤 선거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국에는 선거에 대한 공포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밖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2020년 11월 제프리스 목사는 폭스뉴스 게재한 논평에서 “누가 공직에 있던 상관없이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정부 지도자가 우리가 선호하는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에게 복종하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했다.

소환되기도 했다.

보수단체인 ‘성장을 위한 클럽’이 지난주 발표한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는 아이오와, 뉴햄프셔, 플로리다, 조지아 등 주요 4개 주에서 일대일 대결에서 트럼프를 꺾을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9일부터 11월 11일까지 유고브

강혜진 기자

트위터, 가짜 ‘예수 그리스도’ 계정 인증... 기도제목 쇄도 중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직후 월 8달러를 내면 파란 체크마크를 달 수 있는 상품을 내놔다. 이 마크는 암묵적으로 트위터로부터 인증을 받은 계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검색 등에 우선 노출된다.

그러나 가짜 계정도 8달러만 내면 이 마크를 달고 공식 계정을 사칭할 수 있게 되자, 머스크는 이를 만에 이 계획을 철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러한 가짜 계정 중 ‘지저스 크라이스트’(Jesus Christ) 계정이 눈길을 끌고 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계정의 소유자는 “난 종교인이 아니지만 이 계정을 인증받을 수 있었다”면서 “과거에 인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지만, 일론 머스크가 규칙을 변경한 후 인증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내가 계정을 인증한 이유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보여 주

기 위해서이다. 난 분명 예수가 아니”라고 했다.

2008년부터 트위터를 시작한 그는 풍자로 이 계정을 등록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많은 기도 요청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제목을 보내온다. 그들은 내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쨌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여전히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했다.

이어 “기도 요청은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온다. 사람들은 때로 격려가 되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나 난 훈련된 심리학자가 아니고, 이러한 일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자격증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익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지옥에 갈 것으로 믿는 이들로부터 살해 협박과 모욕을 받기 때문”이라며 “난 이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머스크는 “이 구독 정책으로 중대한 가짜 계정 사칭 문제는 일어나지 않



트위터

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11월 29일부터 다시 구독 상품을 공개할 방침을 밝히

강혜진 기자

사마리아인의지갑, 내달 2억번째 선물상자 우크라이나에 전달

미국 북음주의 자선단체 사마리아인의 지갑(Samaritan's Purse)이 주관하는 연례 자선 행사인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peration Christmas Child)’가 전쟁 위험에 처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에게 2억 번째 신발 상자를 전달한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기독교 선교의 일환으로 전쟁, 질병, 빈곤, 재난으로 고통받는 국가의 아동들을 위해 장난감, 학용품 및 위생용품으로 가득 찬 신발 상자를 성탄절 이후에 증정해왔다. 이를 위해 30년간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및 한국의 교회들이 협력했다.

이 프로그램은 1993년 고(故)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설립한 이래로 170개국 이상, 1억9천8백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했다. 2021년에는 미국에서만 약 1천만 개의 신발 상자를 모았으며, 제휴 그룹을 통해 1백만 개를 더 추가했다.

프랭클린 그레함의 아들인 에드워드 그레함 사마리아인의 지갑 운영 부사장은 CP에 이 단체가 1996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봉사했으며, 올해 4600개 이상의 협력 교회들이 신발 상자를 모으는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2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난 2019년 예라도르에서 에드워드 그레함 사마리아인의지갑 부사장이 신발 선물 상자를 어린이에게 나눠주고 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OCC)

시작된 이후 사마리아인의 지갑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통해 3200개 교회 네트워크와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식량과 의약품을 조달했다.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의 자원봉사자와 직원들은 교회 지원자들이 복음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치도록 교육한다. 또 각 나라별 모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번역해 현지 어린이들에게 전달한다. 이 프로그램은 사마리아인의 지갑 회장인 프랭클린 그레함이 보스니아 전쟁 당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요청받으면서

시작됐다.

프랭클린 그레함은 성명에서 “우리는 첫해에 약 1만1천 개의 신발 상자를 모았고 올해는 2억 번째 신발 상자를 모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미국 전역과 전 세계에서 참여하고 있는 교회와 수십만 명의 놀라운 자원봉사자 없이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레함에 따르면 매년 8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신발 상자를 만드는 일을 돕고 있으며, 1만 5천여 명이 신발 상자를 수거하고 교회 지원자들을 모집한다. 그런 다음 복음이 필요한 지역을 토대로 신발 상자를 배달할 곳을 결정한다.

에드워드 그레함은 아버지 프랭클린이 복음을 들었던 적 없는 다수의 섬들이 있는 태평양에서 사역할 마음이 있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는 특히 대평양의 섬들을 완전히 폐쇄시킴으로서 상황을 힘들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직원들은 놀라운 일을 해냈다”고 했다.

에드워드는 2023년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에 대해 “계획은 주님께 달려 있다”면서 “복음의 영역을 뻗어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거나,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모든 액세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일 교역자 오전 9:30
 수요일 기도회 오후 8:30

박은성 담임목사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이미애 담임목사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전 10:00

한주봉 담임목사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현욱 담임목사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새벽 6:00(월-토)

송재봉 담임목사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7:30

박지상 담임목사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주일예배 오전 11:00

JOE HONG 담임목사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e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주일예배 오전 10:30

ISAIAH LEE 담임목사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069

장경호 담임목사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주일예배 오후 2:00

제임스김 담임목사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남상권 담임목사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김상현 담임목사

남가주 주안여성결교회

832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213)422-638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팀구 오전 7:30

오상규 담임목사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김창곤 담임목사

남가주은혜선교회

300 Valjejo Dr. Glendale, CA 91206
 T. (818)713-3006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저녁 7:00
 토요일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차권희 담임목사

늘워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강은덕 담임목사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린신예배 오후 3: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00

김영일 담임목사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주일예배 낮 12:00
 수요일예배 오전 10:00

정용암 담임목사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일성경회기 오후 7:30
 토요일참기도회 오전 7:30

신용석 담임목사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주일예배 오전 11:00

정달성 담임목사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화-토)
 중보기도회 오전 10:00(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수)

김명구 담임목사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 2부 오전 11:00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목,금), 오전 6:00(토)
 리크레전트 주일예배 3부 오후 2:30
 (2801 Montrose Ave., La Crescenta, CA 91214)

서민수 담임목사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주일예배 오후 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일참기도회 오전 8:00

장형석 담임목사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윤혁 담임목사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주일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9:00
 금요일성경공부 목요일 저녁 7:00
 목요일기도회 목요일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전 6:30

이정민 담임목사

새생명감사교회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T. (626)773-1131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신현우 담임목사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주일예배 오전 11:30

곽태규 담임목사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토요일)

장동훈 담임목사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임상훈 담임목사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8129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이석기 담임목사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6:30

김요한 담임목사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정찬군 담임목사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일예배 목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일예배 수요일 새벽 5시 30분

김지연 담임목사

원웨이침례교회

6015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일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최주철 담임목사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표희곤 담임목사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류연주 담임목사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김성규 담임목사

주백성교회

3020 Wilshire Blvd, #100, Los Angeles, CA 90010
 T. (818)633-1241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양수용 담임목사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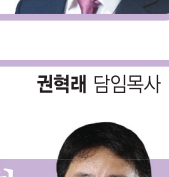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권혁래 담임목사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30

조인 담임목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cc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10:00

류광환 담임목사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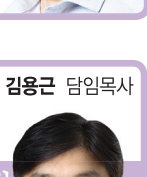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김용근 담임목사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주일예배 오후 1:00

정하이 담임목사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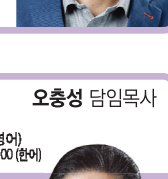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오정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오정시)
 주중예배 목요일 오후 8:00(한어) / 금요일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일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일 오후 8:00(한어)

오홍성 담임목사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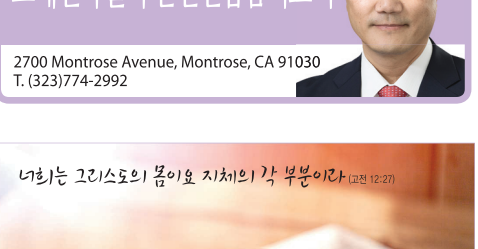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양국민 담임목사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동부 지역, 글렌데일, LA북부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김성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심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 수, 금)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213) 674-7966, (213)245-6616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새벽예배 오전 8: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오전 6:20(토)
대학생전부팀 EM 오후 2:00 수요중보기도모임(수) 오후 7:30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배우고 이민2세를 섬김자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 & Eden 고지)
T.(213)386-2233

씨니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영성예배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 월-토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323)833-9090

최순환 담임목사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1:00
Heart of David 금요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교대
24325 Crenshaw Blvd, #241, Torrance, CA 90505
T.(310) 905-2228 / newchurchdttla.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323) 735-6412 / gmcchurchc.com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323) 913-4499 / F.(323) 913-4494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626) 444-0058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신교로 새을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562)674-3016, cell.(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우영화 담임목사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909)590-3722 www.eastsarang.org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현 담임목사
새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회복이 있으며 신과 진노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 90006
T.(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626) 810-3455 / F.(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말씀강화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909) 622-2324, F.(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실과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323) 897-5751
lordslow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GCB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리타노 오후 6:3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기와 사랑하는 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213) 749-4500 / F.(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이명수 담임목사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초.초 정심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323) 667-992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전야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목요집회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EM예배 오후 12: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기도회(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이순환 담임목사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366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11:00 EM성경공부 오후 7:00 (금)
EM예배 오후 12: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토)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기도회(매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909) 595-3110 hnsla@hnsla.org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일(토)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909)396-4441 www.gvc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818) 366-0089 / www.kvcmc.com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12:30 오전 10:15, 오후 12:40
EM 오전 11:15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새벽부 오전 8:45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리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부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818)882-9191, F.(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캘리포니아서도 '사탄 동아리' 승인... 학부모들 분노·우려



방과후 사탄 동아리 로고. ©시애틀 사탄 사원

미국 사탄교의 방과후 모임인 '사탄 동아리'가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승인돼 학부모들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크리스천헤드라인(Christianheadline)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중부 테하차피 학군은 테하차피 골든힐스 초등학교에서 매달 사탄 동아리 모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매체인 테하차피 뉴스는 "사탄 사원은 지난 10월 말부터 학군과 소통하며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지난 14일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탄 동아리는 사탄교가 기독교계 방과 후 모임인 '굿뉴스 동아리'에 맞서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적 합리주의를 강조

하는 철학 수업을 내세우고 있다.

사탄 동아리의 공동 설립자이자 대변인인 루시엔 그리브스는 "종교적 내용은 클럽에서 가르치지 않는다. 동아리 이름에 사탄이 들어가 있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골든힐스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5학년 손자를 둔 할머니는 "자녀가 이 사탄 동아리에 참석하길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매우 역겹다"고 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초등학생들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라며 "그들을 대상으로 사탄 동아리와 같이 잘못된 철학을 가르쳐선 안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혜진 기자

UMC, 아칸소 교회 3곳 탈퇴 요청 거부



아칸소에 위치한 존스보로 제일연합감리교회 예배 모습. ©유튜브 캡처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한 지역기구는 동성애 문제로 인한 분열로 교단을 탈퇴하기 원하는 아칸소 교회 3곳의 요청을 부결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UMC 아칸소 연회는 핫스프링스 컨벤션 센터에서 7시간 동안 특별총회를 열고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논쟁으로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정한 38개 교회의 요청에 대해 투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연회는 35개 교회의 탈퇴를 승인했지만 캐벗 제일연합감리교회, 존스보로 제일연합감리교회, 시어시 제일연합감리교회 등 세 교회의 탈퇴 요청은 부결시켰다.

성명서는 "탈퇴 기준을 받지 못한 세 교회는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날짜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차기 당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고 밝혔다.

교회들은 최소 3분의 2가 탈퇴에 찬성해야 하는 투표 요건을 통과했다고 CP는 전했다.

탈퇴 요청이 승인된 35개 교회의 다음 단계에는 새로운 교회 법인을 만들고 재산 및 기타 자산을 이 새로운 법인으로 양도하고 UMC에 대한 지불 의무를 완료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 단계가 완료되면 떠나는 교회는 재산을 새로운 단체로 이전할 수 있다.

한편, UMC는 동성론 축복과 동성애자 안수와 관련해 최근 몇년간 분열적인 논쟁을 겪었다.

비록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UMC의 입장을 변경하는데 실패했지만, 교단 내 많은 진보 성향의 지도자들은 규칙 시행을 거부했다.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교회들은 이러한 흐름을 반대하는 가운데 UMC는 지난 2019년 총회에서 탈퇴 절차를 마련했다. 이 절차는 각 교회 적격 교인의 3분의 2가 승인하고 연회 회원의 과반수 투표가 필요하다. 탈퇴 요청이 부결된 아칸소 교회 3곳은 3분의 2 기준은 통과했지만 연회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칸소 연회 거리 물러 감독은 유엔뉴스(UM News)에 "투표를 했고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들은 교회가 탈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마음으로 투표했다"라고 말했다.

물러 감독은 그러한 교회들은 탈퇴 동의를 다시 제출할 권리가 있다고 제안했다.

존 마일스 존스보로 제일연합감리교회 목사는 페이스북에 영상을 공유하고 교인들에게 연회가 탈퇴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매우 실망스럽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우리는 재편성하고 그것에 대해 생각할 것이다... 추수감사절이 끝난 후, 행정위원회와 함께 모여 의견을 듣고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선택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이 일어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두자"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세계감리교회(Global Methodist Church)가 UMC의 신학적으로 보수적인 대안으로 공식 출범했으며, 많은 UMC 교회들이 이 교단에 가입하기로 투표했다.

미국의 몇몇 UMC 교회는 탈퇴 요청에 대해 투표하기 위한 특별총회를 계획했으며 대부분 승인됐다.

김유진 기자

‘동성혼 축복’ 노르웨이국교회, 미혼 동거 사제도 서품하나?

스칸디나비아 3국 중 가장 큰 기독교 교파인 노르웨이 국교회(Church of Norway)의 주교들이 미혼 동거 중인 사제의 서품을 지지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현재 북유럽 주교회의(Nordic Bishops' Conference)는 사제의 동거를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노르웨이 뉴스 매체인 바르트 랜드는 설문 조사에서 노르웨이 국교회의 모든 주교들이 결혼하지 않고 동반자와 함께 사는 사제를 기꺼이 서품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또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의 주교인 카리 베이테베르크(Kari Veit-berg)가 2017년부터 미혼 동거 중인 사제, 성가대의 선창자, 교리 문답 교사, 부제 등을 서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의 프리미어 크리스천 뉴스는 노르웨이 국교회가 1995년 이 문제에 관한 성명서에 따라 미혼 동거인의 사제 서품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 결의안은 교회 직원이 “함의 결혼 외에는 동거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노르웨이 기독교 신문인 다겐은 미혼의 동거 사제를 서품할지 결정할 권한이 주교 각자에게 있다고 밝힌 올라브 피크세 트베이트(Olav Fykse Tveit) 노르웨이 주교회의 의장의 발언을 보도했다.

그는 “(루터교회) 주교들은 동거를 위

한 최선의 방식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하지만 주교 각자가 결혼을 추구하는 (서품) 후보자를 개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데에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겐의 편집자는 이에 대한 사실에서 “사제가 다른 사람과 혼인한 동시에, 그 혼인의 기초가 되는 결혼에 대한 이해와 모순되게 산다면 무엇을 시사하겠는가?”라며 “너무나 실망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유럽 기독교 뉴스 매체인 CNE 뉴스는 노르웨이 국교회 보르그 교구의 카리 망루드 알스보그(Kari Mangrud Alvsvåg) 주교의 말을 인용, “누군가를 서품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하진 않으나, 여전히 결혼을 장려하는 주교회의의 입장을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07년 노르웨이 국교회는 동성애자들이 안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또 2015년 노르웨이 국교회 제너럴 시노드(총회)는 교회에서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투표로 결의했다.

노르웨이는 2008년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으나,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교회의 몫이었다. 2013년 노르웨이 주교회의는 찬성 8, 반대 4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되, 축복 예배만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김진영 기자

탈레반 재장악한 아프간, 여성 포함 14명 공개 매질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시에서 부르카(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를 착용한 여성이 구호품을 배급받고 있다. ©Wanman Uthmaniyyah/ Unsplash.com

지난 23일 아프가니스탄 동부의 한 축구 경기장에서 테러단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을 초대한 뒤, 수백 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14명에게 태형을 가하는 처벌을 지켜보게 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들 14명은 간통 및 절도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총 21-39차례의 태형을 당했으며 이 중 3명은 여성이었다.

탈레반 정부 대법원은 “여성 3명을 포함해 14명이 간통, 강도, 기타 형태의 부패를 포함한 다양한 죄목으로 학자, 당국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매질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탈레반 대변인 오마르 만수르 무자히드는 세 명의 여성이 태형을 받고 풀려났지만 일부 남성들은 수감됐다고 전했다.

이번 공개 처벌은 지난주 탈레반 최고지도자인 히바투라 아룬자다가 이슬람 샤리아법(이슬람 공동체 헌법)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이후 두 번째다.

1990년대 탈레반이 아프간을 통치할 당시, 테러리스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묵살하기 위해 축구 경기장을 동원해 공개 사형과 돌팔매질 처형을 시행했다.

지난 8월 텔레그래프는 자불 지방의 탈레반 관리들이 발표한 성명을 인용해 여성 2명을 포함한 5명이 매질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8월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VOM)는 연례 ‘세계 기도 안내서(Global Prayer Guide)’에서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제한 국가”로 지정, 탈레반이 장악한 이후 폭력적인 극단주의 단체의 표적인 기독교인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라고 발표했다.

안내서는 “기독교인들이 자유로운 예

배를 위해 이웃 나라로 대거 이주했지만, 아프간 가정교회는 계속 성장 중”이라며 “아프가니스탄에서 매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하지만, 이들의 죽음은 대중에게 보통 알려지지 않은 채 일어난다”고 했다.

5월, 아룬자다는 아프간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전신 가리개 착용을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2021년 8월 바이든 행정부가 70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를 남겨둔 채,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모든 군대를 철수한 후 두 번째 여성 제한 조치다.

이 법령에 따르면, 가족 중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아버지나 가까운 남자 친척은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투옥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탈레반은 여성이 남성 친척 없이 45마일(약 72km) 이상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행 제한을 부과했다.

지난해 여름 워싱턴 DC에서 열린 연례 국제종교자유정상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데이콘다주 널리 시장을 지낸 아즈라 자파리는 미국 정부에 하자라족에 대한 탈레반의 처우를 ‘대량학살’로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2008년 아프가니스탄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임명돼 2014년까지 그 자리를 지낸 자파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후 여성과 하자라족의 상황이 암울해졌다고 밝혔다.

하자라족은 주로 중앙 아프가니스탄에 거주하는 350만 명 이상의 시아파 무슬림 소수 민족이다. 이들은 오랫동안 국가 행위자와 무장 단체에 의해 핍박받는 등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차별받는 소수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김유진 기자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EM예배 (1부)오전 9:00, EM예배 (2부)오전 11:00, 환어(환어) 오후 7:30, 환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OC예배: 수요일성경연구회 오후 7:30, 새가족 환영 예배 오후 7:30, 66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EM 1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 549-9199 / choon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신태섭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310)217-9191 www.gpclove.com

이호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일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 532-0191

김정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EM 1부 9:30/2부 1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송: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학교 중/고등부 요일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돌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김경환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EM성인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금요일 저녁 7:30,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310) 530-4040 / F.(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우준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KM찬양예배 오후 2:00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침으로 오백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www.torrancegcc.org

고창현 담임목사
주일1부 오전 7:45, 주일2부 오전 9:45,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오렌지카운티 지역

구봉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한어)찬양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00(토)
금요찬양 오후 7:30, 영아찬양예배 오전 11:30, 영어찬양예배 오전 9:30, 11:30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백정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영아)찬양예배 오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혁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2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전 1: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안창훈 담임목사
1부예배(EM) 주일 9:00am, 2부예배(EM) 주일 11:00am,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금요찬양예배 8:00pm, (매일 두번째 금), 새벽예배 화-금 5:30am, 토 6:00am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김한오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림학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중보기도 오전 9:00(목), 주일학교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mc.org

김한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일요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9:1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박신웅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중고등부 오전 11:15, 한어부 오후 1:00, KM대학원부 오후 2:30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스리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 261-9100 / vision.onnuri.org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매일 마지막 금요일), 청년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oc.com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2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08:0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삼금반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훈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9: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11:00
목요재미예배: 오후 7시, 목요일예배: 오전 6:00(화-금),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목요일예배: 오후 7:00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csocal.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를 찾을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ja@gmail.com

성교부흥을 회복하라 #280

강태광 목사의 기독교 문학 산책

성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파키스탄 교회가 일어서고 있다(1)”



이상훈 목사 주미전선교회 대표

필자는 선교지를 갈 때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접하게 된다. 특히 파키스탄은 더욱 그렇다. 파키스탄은 약했지만, 현자인 교회의 역사가 200년이 된다. 우리 단체의 파송 선교사들이 사역한 지도 20년이 가깝다. 그동안 여러 가정의 선교사들이 합류하였고 그곳의 지역 전도와 비전 스쿨을 통해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2016년도에 파키스탄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20대의 청년 사역자들이 훈련받고 배출되어 장기 선교사로 주변 나라들에 파송되었다. 그 후 매년 끊임없이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졌고, 현재 우리 단체 안에서 만도 50여 명의 파키스탄인 선교사가 파송되어 활발한 동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반대하고, 지역 사회가 핍박하는 일이 비밀비재한 가운데 파키스탄 교회의 청년 선교사들이 기적의 열매로 생겨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신 좋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지금 파키스탄은 가난하고 천대받은 자들이 복음으로 일어서서 강하고 억압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거세게 불고 있음을 우리 지역 교회들은 알아야 한다. 한국과 미국 등에서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온갖 사회의 현상이 질병처럼 번져가며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듯해도 세계 교회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대한 운동력은 아랍권과 이스라엘, 그리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시며 마지막 때를 향하고 계시다.

필자는 파키스탄을 통한 인도의 선교 부흥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한민족이었는데, 1947년 영국에서 독립되면서 인도는 힌두교도 중심으로 파키스탄은 이슬람교도 중심으로 민족이 자발적 분립을 하였다. 앞으로 인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부흥도 필자가 이야기할 것이다. 파키스탄의 청년 장기 선교사들이 나누어진 동족의 복음화를 위해 이미 인도로 들어가서 복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까지 그들도 교회의 대부분 시기가 있었다. 교회 부흥이 막혔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교회가 선교 부흥의 동력을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교회가 선교의 열정을 잃으면 복음의 꽃이 시들게 된다. 파키스탄 교회는 그렇게 힘을 잃고 이슬람의 핍박과 위협 속에서 교회의 능력을 잃었던 것이다. (계속)

훌륭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과 유쾌한 소통을 하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작이 주섬주섬 집을 쟁겨 죽근 몇 사람과 아든 숲으로 갔습니다. 동생 프레더릭이 형을 이어 공작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프레더릭을 비난했고 프레더릭이 공작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공작이 권좌를 떠나 자리 잡고 사는 '아든 숲'은 낙원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든 숲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화를 갈망했고 어른들도 공작이 사는 아든 숲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아든 숲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런 소문 자체가 프레더릭 공작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프레더릭의 조카 로잘린드는 아버지와 함께 아든 숲으로 가고 싶었지만, 프레더릭 공작의 딸이자 사촌인 시리어 때문에 삼촌 집에 남았습니다. 로잘린드와 시리어는 같은 시기에 태어나 같이 자랐습니다. 둘은 같은 내용으로 울고 웃었습니다. 둘이서 죽고 못 사는 소울 메이트였습니다. 프레더릭은 조카가 맘에 들지 않았지만 딸 때문에 로잘린드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프레더릭 공작이 자신의 강함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한 격투 시합에 찰스라는 유명한 투사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상대는 올랜도라는 완전 무명의 선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인도 찰스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드디어 시합날, 무명선수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구경하는 로잘린드와 올랜도가 눈이 맞았고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놀랍게도 올랜도는 유명한 투사 찰스를 이겼습니다.

프레더릭 공작이 승리의 화환을 걸어 주며 승자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는 “저는 올랜도이고 톨랑드 보이스의 아들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프레더릭은 화를 벌컥 냈습니다. 톨랑드 보이스는 프레더릭 형의 가장 친한 친구였고 죽으면서도 ‘프레더릭을 공작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프레더릭은 톨링의 아들 올랜도를 싫어했고 그를 추방했습니다. 올랜도를 좋아하는 로잘린드에게도 불뚱이 튀었습니다. 로잘린드는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세익스피어의 “뜻대로 하세요”

삼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아버지가 사는 아든 숲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어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숲에서 생존하기 위해 변장을 했습니다. 덩치가 큰 로잘린드는 남장을 하고 개니메드라는 이름으로 남자행세를 하고, 시리어는 알리나라는 이름으로 여동생 행세를 했습니다.

올랜도는 형 올리버와 유산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고 형의 미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 올리버는 동생 올랜도가 찰스와 경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고 찰스에게 확실하게 본때를 보여주라고 합니다. 찰스를 이긴 것이 화근이 되어 형에게 더 미움을 받아 올랜도는 쫓겨납니다. 쫓겨난 올랜도는 아든 숲으로 도망갔습니다.

로잘린드와 시리어는 이든 숲에서 양치기를 만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한 참 세월이 흐른 후 로잘린드는 숲 나무에 걸린 시들을 발견합니다. 로잘린드(개니메드)와 시리어(알리나)는 시를 읽으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 시는 절절한 사랑을 담았습니다. 곧 그 시를 쓴 사람이 올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올랜도를 만나 개니메드는 올랜드의 친구가 됩니다.

개니메드는 올랜도가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자신을 잊지 못하고 상사병을 앓고 있는 올랜도에게 남장 여자 개니메드는 사랑을 고백하면 상사병이 치유된다고 사랑 고백을 연습하게 합니다. 올랜도는 자신의 친구 개니메드가 로잘린드가 변장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녀 앞에서 그녀에 대한 사랑 고백을 연습했습니다.

개니메드와 알리나는 한동안 나타나지 않아서 궁금했던 올랜도 소식을 그의 형 올리버에게서 듣습니다. 올리버가 전하는 소식은 끔찍했습니다. 올랜도는 숲에서 우연

히 뱀과 사자의 공격을 받던 형 올리버를 보고 구하게 됩니다. 형을 구하다 올랜도는 다쳤습니다. 그래서 올랜도는 형을 보내서 자신의 상황을 알렸던 것입니다.

개니메드는 올랜도의 진심을 알게 되자 자신의 존재를 밝히지 않고 아버지에게 조건부 결혼승낙을 받습니다. 자신이 로잘린드를 데리고 오면 올랜도와 로잘린드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약속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잘린드는 올랜도에게 자신을 밝히고 결혼하였습니다. 이어서 알리나로 변장했던 시리어도 올리버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 갈등이 풀려 집니다. 올리버와 올랜도의 반목과 갈등도 끝이 납니다. 프레더릭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형에게 권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상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5대 희곡 중의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 As you like it!)의 줄거리입니다. 이 작품은 모든 등장인물이 행복한 상태로 결말을 맞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을 그려내는 작품은 많지 않습니다. 몇 가지 교훈들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모든 인생은 나름대로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작품의 등장인물은 각자의 선택으로 행복합니다. 제목이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입니다. 등장인물 모두는 자발적 선택으로 각자의 행복을 선택합니다.

둘째로 갈등의 해결이 행복한 삶을 위해 중요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본 작품 (뜻대로 하세요)는 흔한 형제의 갈등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해 갑니다. 작품이 해피엔딩이 된 이유는 갈등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갈등은 가까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갈등을 겪는데, 그 갈등의 극복 여부에 행복과 불행이 달렸습니다.

셋째로 본 작품은 사랑이 행복으로 가는 왕도임을 가르칩니다. 등장인물 각자가 누리는 행복은 각자가 선택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로잘린드는 올랜도와 사랑의 결실을 봅니다. 시리어는 올리버와 사랑하고 결혼합니다. 프레더릭 공작과 형도 화해하며 사랑을 회복합니다. 올랜도와 형인 올리버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합니다. 모두는 사랑으로 행복을 누립니다.

2022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신입생 모집.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세제 최고의 교수진,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성경지역학박사, 목회학박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증. 특 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 (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대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Tel: 1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면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장재호 목사의 은혜의 샘

말씀순종의 신앙을

신명기 8:1-10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호

(본문) 1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3 너를 낮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중략)...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 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6 네 하나님 여호와 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찌니라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8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9 너의 먹은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켈 것이라 10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라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 공동체는 인격적인 결합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영적 가치와 체질과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모두 배울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심

1절과 2절을 분석해 보면 양면성을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1절은 소망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많은 것을 행하고 누리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세상종교는 정성만을 요구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격을 요구하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는 비전을 주십니다.

신앙보다는 신념을 강조하는 잘못된 신앙은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해보다 안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가짜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고 번성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들어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

님을께서 우리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생애에 따르면 그들은 자격보다는 조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모든 조건을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2. 낮추시고 밟으시고 시험하심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의 세월은 사람의 일평생의 절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격된 믿음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길을 끌고 다니십니다. 직행하면 애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 빨리 걸으면 가나안 땅까지 10일에서 천천히는 12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도록 하시지 않고 이나라, 저나라를 다니며 남의 영토를 짓밟고 전쟁까지 하게 하시며 여러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400년의 1/10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에 이대로는 하나님 중심의 성숙한 신앙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합격될 때 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시험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걷게 하였고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눌러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게 하셨습니다. 기병과 마차까지 동원하여 불안한 위기 직전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벽으로 모세의 백성들

을 지키심으로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람을 일으켜 홍해바다 한가운데 길을 만드셨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상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군대는 물을 합치심으로 말과 군대 모두가 산채로 몰살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습을 보고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의기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기적을 통해 감사와 겸손과 순종보다는 우월감과 교만의 오류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들 중에서도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오면 자기가 무엇을 얻어내고 고침 받고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어떤 댓가를 요구하며 사기꾼의 근성을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허세와 교만으로 들떠있는 백성들을 낮추셨고(2절, 3절) 허세와 교만을 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백성을 삼기위해 낮추시고 밟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들 중에서도 직분에 맞는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없이 허세와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낮추시고 밟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을 계속하여 시험하십니다. 시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테스트(test)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자들의 영적 수준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합격점에 오르게 하기위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겸손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하기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지키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두 번째로 템테이션(temptation)입니다. 이는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실족시켜 지옥에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호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호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근본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프로지골드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Gold PRO-Z Premium formulation

오래 기다리셨던 **아연보충성분 프로-지골드** 드디어 출시! 아연, 크롬, 주성분에 **홍화씨유**와 **달맞이꽃 종자유추출물(PGG)**이 추가된 PRO-Z Gold



혈당조절! 면역기능! 세포분열!

- 1 혈당, 정상적인 면역기능 때문에 고민이었던?**
프로-지 골드가 삶의 활력을 찾아드립니다!
프로지 골드의 주성분 아연, 미네랄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및 세포분열에도 도움을 줍니다.
- 2 산화아연이 아닙니다.**
체내 흡수율이 높은 글루콘산아연(zinc gluconate)이 들어 있습니다.

식후 혈당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프로지 골드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 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 약들은 천연 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 부종, 신장 부종, 간 독성과 방광염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많은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근육세포의 당 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의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39~43 미국 특허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 기능저하를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이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I(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신 합성 물질 '프로지' 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에 킬레이트 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기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특별 행사 SALE



프로지 3병 구입시 1병 Free \$237+Tax

213.434.1170

3008 Wilshire Blvd #200., LA, CA 90010
www.prozgoldusa.com / prozseller@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강준민 칼럼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언어



강준민 목사
새생명비전교회

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언어에 대해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진선미(眞善美)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아름다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름다움은 우리를 경탄하게 만듭니다. 감동을 선물해 줍니다. 즐거움을 선물해 줍니다. 아름다운 것은 오래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음악에 더 머물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보는 순간 그곳에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것은 거듭 방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곳을 다녀오면 그곳을 다시 방문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면 오랫동안 여운이 남고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음악, 감동을 주는 드라마, 영화, 책을 거듭 방문하고 싶어 합니다.

아름다운 것은 싫증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늘 새롭습니다. 아름다움은 신비롭습니다. 같은 경치를 보고도 아름답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것은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름다움을 인지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

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감지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관계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언어는 서로에게 다리를 놓아줍니다. 반면에 어떤 언어는 다리를 불태워 버립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언어는 극단적인 언어입니다. 거칠고 난폭한 언어입니다. 거칠고 난폭한 언어는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온유한 언어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언어가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는 사랑의 언어일까요?

첫째, 존중하는 언어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관계의 핵심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믿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바라볼 때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가까이합니다.

둘째, 격려하는 언어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격려입니다. 격려 속에는 위로와 칭찬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격려는 쓰러져가는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격려는 의미 있는 일을 하지 만 결과가 더디 나타나 낙심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힘입니다. 특별히 슬픔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고, 잘하고 있는 것을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다고 신뢰해주는 것이 격려입니다.

셋째, 감사하는 언어가 관계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선물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이 성취한 것이 자신 혼자 힘이 아니라 도와주신 분들의 도움으로 된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은혜를 키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덕분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과분해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습니다. 언어는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언어가 그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언어를 신중하게 선택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의 품질이 삶의 품질임을 늘 기억하십시오.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있는 많은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대한 서성교회(西成教會)의 전인선(全仁善) 목사를 만나 조선 교회에 어떤 정책을 쓰는 것이 좋겠느냐고 묻자, 전 목사는 “신앙에 손을 대지 말고, 자유 활동을 하게 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 시책에 협력케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말했다. 원등은 그렇게 하겠으니 와서 교계를 수습해 달라고 요청하자, 전 목사는 이를 수락하고 내한하였다. 『姜信明信仰著作集』(기독교문사, 1987), 579~80쪽.

이에 따라 전 목사는 조선 기독교단 조직에 착수하였다. 전 목사는 교계 중진들의 협조를 받아 일제 패전 40여 일 전에 정동제일 감리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의에 앞서 전 목사는 발언권을 얻어 자기를 중상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리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이로부터 양보해서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 일본 기독교단, 대만에 대만 기독교단, 만주에 만주 기독교단이 있는 것같이 조선에 조선 기독교단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부 중상하는 자들이 있어 결국 일본기독교조선교단

으로 낙찰되었다고 해명했다. 위의 책.

1945년 8월 개신교 각 교파를 합하여 소위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켰다. 처음에는 ‘일본 기독교단’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날 ‘조선 교단’으로 한 것이다. 교단 본부에서 일하던 인사들 중에 자신들이 배제된 데 질투를 느껴, 일제 경찰과 헌병 계통에 이를 민족운동이라고 고해 바쳐, 그들이 감압적으로 ‘일본 기독교단’ 이름을 앞에 붙이게 되었다. 유호준, 『역사와 교회』, 182쪽.

이 때 장로교 대표 27명, 감리교 대표 21명, 구세군 대표 6명, 그리고 소 교파 다섯 군데에서 대표자 각 한 명씩이 평양 장대현교회에 모여 이 교단의 성립을 공포하였다. 따라서 명실 공히 모든 교파가 해산되었고, 조선 교회는 일제 교회에 그대로 예속되어 버리고 말았다. 金良善, 『韓國基督教解放十年史』, 44쪽.

아베(阿陪) 아베는 일본 총리를 지낸 육군대장으로 정계의 거물인데, 전쟁이 치열해지자 조선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그를

과견했다.

총독에 의해 교단의 초대 통리(統理)에 장로교회의 김관식(金觀植), 부통리에 김응태(金應泰), 총무에 송창근이 임명을 받았다. 유호준 목사는 그의 회고록에서 김관식 목사가 총독부로부터 사전에 이미 내정되어 있었고, 본인도 승낙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유호준, 『역사와 교회』(대한기독교서회, 1993), 182쪽.

해방을 불과 2주일 앞두고 이루어진 일이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타까운 인생사였다.

교회가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이러한 불법적 비신앙적 강요에 응치 않은 인물은 투옥하거나 강단에서 축출한 후, 함구령 또는 금주령을 내려 일제 활동을 금지시켰고, 그들의 의사와 요구에 순응하는 인물들로 교회를 지도하게 하는 간악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하는 뜻있는 인사들은 지하로 숨어, 한때 70만을 헤아리던 개신교인의 숫자가 그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 교회가 가장 처절하게 움츠러들었던 시기였다.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임상우 이민법 변호사
J.D. (법학박사) & LL.M (전문 법학학위/Post Doctorate Degree)
 Golden Gate Law School 졸업
 미국 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연방법원 출두 자격소지
 Member of AZ Bar & AILA
 이민법변호사 경력 2003년 10월 부터 현재까지
 다음카페 미사모 이민상담 변호사 2007년 3월부터 2013년 8월
 미주 중앙 라디오 방송 이민칼럼니스트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
 미주보음방송, 미주 중앙 TV, 라디오서울, 라디오 코리아, TVk
 중앙일보 웹사이트, YTN 뉴스 라디오 등 이민칼럼/상담 경력

} **임상우** {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www.davidlimlaw.com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진유철 칼럼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는 마인드 베이스먼트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지구촌에 월드컵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한국인으로 잊을 수 없는 월드컵은 단연 2002년 한일 월드컵이고, 당시 히딩크 감독은 한국인의 가슴을 뜨겁게 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축구 변방 국가였던 대한민국을 예선 통과, 16강, 8강, 4강까지 올라가게 하므로 한국축구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그는 자신의 책 '마이웨이'에서 말하기를 '한국 선수들을 처음 만났을 때 기량이나 실

력 면에서는 이제까지 자기가 상대해 왔던 선수들보다 한 수 아래였지만 바른 마음 자세를 보고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유명한 선수들은 자기 몸값이나 더 올리려는 마음이고 인기가 끌리고 하기 때문에 감독의 말도 잘 안 듣고 다른 선수들과도 경쟁으로 한 팀을 잘 이루지 못하는 데, 한국 선수들은 월드컵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여 감독이 하라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함께 열심히 연습한 결과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구를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 있는 바탕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잘 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잘하려고 해도 먼저 '마인드 베이스먼트', 잘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전승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도 '마인드 베이스먼트'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택

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를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유클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또 맥추절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심어 첫수확을 거두게 될 때 감사하여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1년간 농사지는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 때 일손을 내려놓고 모두 모여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집이 아닌 성전에 모이게 하였고, 하루가 아닌 일주일씩 '감사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사 절기를 올바르게 지키기 때마다 은혜와 복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특새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간이 다음 한 해를 축복으로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영훈 목사님 LA 축복성회와 정기공동의 회를 위한 특새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잘 연결이 되는지 하나님 섭리에 놀라고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은 지금이 지치고 힘든 애굽의 삶일 수도 있고,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역전승의 새 역사를 이루어주시기 위하여 감사의 제사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죄의 종이 된 인간이 원수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인드 베이스먼트인 감사로 승리하는 내일을 준비하게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고

중국 국적 거부, 나라를 사랑한 조선인

-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사명 (8)



김 종덕 목사
TIS(Trinity In Society) 연구소장

◆ 1905년 이후 1932년까지 중국 동북지역 조선인

1905년 을사늑약과 1910년 한일합방으로 많은 의병과 독립운동가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다. 이와는 반대로,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7년 간도의 소속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도 육도구(六道溝, 오늘날 용정시)에 '통감부 간도 파출소'를 설치하고 적극적인 조선인 이민정책을 펼친다. 한일합방 이전까지 해마다 만명 이상씩 간도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이는 중국대륙 진출의 야욕이 담긴 정책이었다.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행하는데, 이로 조선의 농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한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지주와 '동양척식회사'가 조선의 농민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면서 많은 조선의 농민들이 만주로 이주하게 된다. 당시 일제와 일본 기업인들이 식민 개척사업을 위해 조선인의 저렴한 노동력을 필요로 했기에 돈을 벌기 위해 조선인들은 만주로 이주하기도 했다. 또

한 천도교와 기독교 등 종교인으로서 종교 활동의 자유나 민족 교육과 사업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렇게 1905년 이후 만주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1910년과 1911년 사이 두만강을 건너 간도로 이주한 조선인은 2만4천명이고,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이주한 조선인은 1만9천명이었다. 청조가 무너진 1912년 이후, 해마다 1만에서 2만명의 조선인들이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했다. 1910년부터 1920년까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은 조선인의 수는 자그마치 19만2천5백명에 다다른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찾아든 한인의 수가 1930년에는 약 60만명 정도였는데 그 중 64%가 연길, 화룡, 훈춘, 왕청 등 간도 일대에 거주한 조선인이었다.

◆ 타향살이 아픔
이 시기 간도(間島)일대 조선인의 생활은 중국 내의 혼란과 일제 간섭에 시달려 아주 어렵고 불안정 했다. 일본이 영토확장의 일환으로 조선인을 간도지방에 이주시키고 보호하는 정책을 취하지만, 청에 귀화하지 않은 조선인의 경우 문패(門牌)에 '임시거주자'라는 의미로 '기호(寄號)'라고 표시하게 했다. 토지소유권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미 개간된 토지마저 몰수했다. 탐관오리의 횡포를 피해 고향을 떠난 이들도 많았는데, 타향인 그곳에서도 청나라 탐관오리의 가렴잡세와 악세로 조선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자료에 의하면,

1924년에서 1929년 6년 사이 간도(間島)일대에 마적이 1,019차례 출몰했는데 마적에 의해 살해당하고 납치당하고 재산을 강탈 당하는 어려움을 겪으며 타향살이를 해야 했다. 사랑하는 조국, 고향을 떠난 일도 마음 아픈데 그곳에서도 녹록치 않은 삶을 살아야했던 '조선족 초기 디아스포라'들을 보면 마음 한 구석이 짙해온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조선인들은 청의 귀화요구를 거부하고 조선인으로 살아간다.

◆ 반일 애국교육
'을사늑약' 이후 이상설, 이동녕, 신채호는 망국(亡國) 원인을 교육의 부재(不在)로 인식하고 신식교육을 통해 '민족자주정신'과 '애국심'을 고양하려 중국동북지역에 학교를 건립한다. 동북지역 최초 신교육기관은 1906년 이상설과 여조현이 연변 연길현 용정촌에 세운 서전서숙(瑞甸書塾)이다. 역사, 지리, 수학, 국제공법, 헌법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애국독립사상을 고취하는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했다. 서전서숙은 1908년에 폐속된다.

이후 김학연은 서전서숙의 교육이념을 계승하여 자신이 이미 1901년에 설립한 서당 규암재(圭岩齋)를 1909년 '명동학교'로 개명하고 신식교육을 시작한다. 명동학교는 중국동북지역, 연해주, 국내에까지 '민족교육과 독립운동의 본거지'라 잘 알려졌다. 명동학교는 이주 조선인에게 신문화를 소개하였고, 여성교육을 위해 명동학교 내 여학교를 병설하여 한국여성교육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그 외에 동북지역에서 애국청년을 양성한 민족계열 교육기관

으로 영신(永新)학교, 동창(東唱)학교, 정동서숙, 창동강습소, 한민학교, 광성강습소 등이 있었다. 특히, 윤상철은 1909년 신촌(新村)에 광성의숙(光成義塾)을 설립하는데, 1912년 기독교를 받아들여 '영신학교'로 개명한다.

당시 기독교는 동북지역 민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에 크게 참여했다. 연변선교를 담당한 캐나다 장로회선교사 로버트리어슨(Robert Grierson)부부, 바커(A.H. Rarke), 후트(W.R. Foote)부부, 스코트(W.Scott) 등은 신변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주 조선인의 독립운동을 지원해 주었다. 민족 운동가 이동휘는 기독교를 서양문명의 매개체로, 계몽운동과 구국 운동의 수단으로 인식했다. 기독교계열 학교로는 '창동(昌東)소학교', '길동(吉洞)기독교당'이 있었다. 천주교계열 학교로는 광동학교, 흥동학교, 신흥학교, 상정여학교가 있었다.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임계순님이 인용한 통계에 의하면, 1916년 연변 4개 현에 설립된 각종 조선학교는 158개교 학생수는 3,879명이었다. 1920년 일제는 연변 대토벌작전을 감행하며 각지의 조선인 운영학교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후 많은 학교가 다시 설립되어 1922년에 165개교 학생수는 1,715명에 이르렀다. 1931년 중국동북 전지역에 항일 애국지사들과 민중이 설립한 학교는 280여 개였고, 학생수는 7,070에 달한다. 이 중 종교 계통에서 설립한 학교는 108개교 학생수는 6,433명이었다. 학생 수를 비교해 볼때, 당시 종교계에서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다.

CHRISTIAN BUSINESS 크리스천 비즈니스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Western Ave., LA, CA 90006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신가요?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기독샵 www.Kidokshop.com 쇼핑이 기부가 된다! 기독샵은 판매수익의 10%를 워브리지를 통해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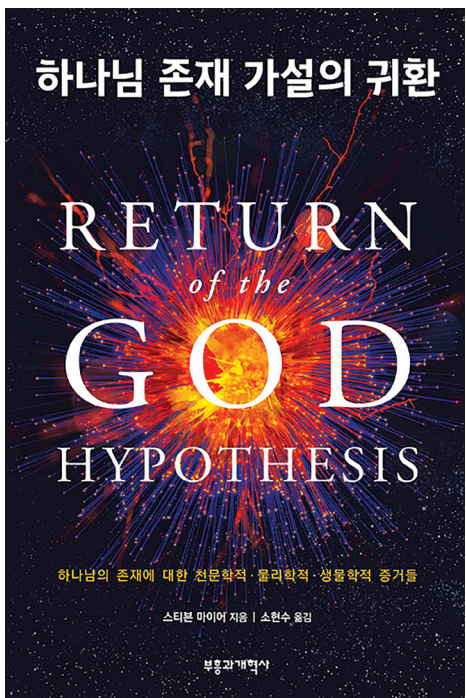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영미의 정성이 한 가득! ~이리 주문해 주세요!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신은 죽었는가?' 과학이 답하다

현대 과학 밝혀낸 사실들, 압도적으로 유물론 아닌 유신론 지지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
스티븐 마이어 | 소현수 역
부흥과개혁사 | 671쪽

우주의
궁극적인
수수께끼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

1966년 4월 8일 타임지 커버 스토리 제목은 "Is God Dead?"(신은 죽었는가?)였다. 이제 인류의 사상 가운데 '신은 죽었다'고 선포한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이 대중에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반세기가 지나 2016년 타임지는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Is Truth Dead?"(진리는 죽었는가?). 절대자를 지운 인류는 이제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기준을 잃어버렸다.

연쇄적으로 따라오는 질문은 "Is Morals Dead?"(도덕은 죽었는가?)일 것이다.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알 수 없다면,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대표적인 무신론자는 그래서 도덕을 '상대적'이라고 대놓고 말한다. 신을 버리면 절대적인 진리도 윤리 기준도 함께 버리게 된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과학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스티븐 마이어는 <세포 안의 서명>을 저술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은 런던 타임스 문에 부록에 의해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그는 만물이 저절로 생겼다고 믿는 유물론이 아니라 지적 설계자에 의해 설계되었다고 믿는 유신론자로, <창조, 진화, 지적 설계에 대한 네 가지 견해>에서 네 번째 견해인 '지적설계'를 지지하는 학자이다(부흥과개혁사, 2020). J. P. 모어랜드, 크리스토퍼 쇼, 앤게이저, 웨인 그루넬과 더불어 <유신진화론

비판>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부흥과개혁사, 2019).

과학 철학의 두 물줄기는 유물론과 유신론으로, '과학자'에 해당하는 부류는 똑같은 가설과 실험을 하더라도 그 저변에 '신은 죽었다'고 믿는 전제를 가진 이들과 '신은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진 이들로 나뉜다. 둘 다 '철학' 혹은 '믿음'에 기초한다.

중요한 건 실험 과학이 둘 중 어떤 믿음을 입증하는가에 있다. 스티븐 마이어는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압도적으로 유신론을 지지한다고 말한다. 무한의 시간과 기막힌 우연으로 그 사실을 애써 부정하려는 유물론의 어리석음을 고발한다.

역사적으로 중력을 발견한 뉴턴을 비롯해 많은 훌륭한 과학자들이 유신론적 과학 철학을 토대로 실험 과학을 전개했다.

마이어가 분석한 것처럼 현대 과학을 지금까지 발전시킨 토양은 그리스-로마 철학도, 동양 철학도 아닌 유대교-기독교 철학(신학)이다. 신이 존재하고 절대자의 설계대로 만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자연법칙과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신념이 서양 과학을 다른 민족이나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시키는 토양이 됐다.

그런데 왜 과학은 신을 배제하게 됐는가? 마이어는 그 시발점을 과학의 획기적 발견에 두지 않는다. 상황적으로는 30년 간의 '종교 전쟁'에 지친 대중이 종교에 싫증을 냈기 때문이고, 사상적으로는 임마누엘 칸트, 데이비드 흄과 같은 철학자들이 신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유물론으로 발을 옮기는 결정적 역할은 찰스 다윈이 해냈다. 그가 쓴 <종의 기원>은 만물의 기원이 신이 아니라 만물 그 자체라는 '철학'이 과학적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유신론으로만 설명 가능했던 실험 과학의 해설이 이제 유물론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 설명이 얼마나 판타지 소설같이 허구적인지는 상관없이,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은 결국 과학 철학으로서 유신론이 다시 돌아왔다는 '선전포고'이다. 현대 실험 과학이 계속해서 밝혀내는 사실은 유물론이 아니라 유신론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대중은 여전히 종교에 싫증을 낸다. 사상 전쟁에선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굴복한 '적은 무리'에 비해 압도적으로 대세를 이룬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롬 1:20).

사람이 아무리 애써 부정하려 해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시 19:1).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을 전한다"(시 19:3, 2).

실험 과학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신비롭고 정교하며 강력한 특성과 능력을 관찰할 때마다 분명히 드러나는 지적 설계자 대신 현상을 설명할 핑계를 계속 만들어 내야 하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까지는 '우주적인 인간 중심적 우연의 일치'가 그들의 변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존재 가설"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첫째, 실험 과학이 유물론을 지지한다는 주장에, 지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눅 들거나 겁먹을 필요 없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에게 유신론을 지지하는 과학적 증거가 아주 많다.

둘째, 마이어 같은 지적 설계 지지자들이 노력한 결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 존재 가설의 귀환>은 신학자 입장에서는 깔끔하고 개운한 책이 아닐 수 있다. 최종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다'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사실을 깊고 복잡하고 지루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현대 과학이 믿는 철학인 유물론과 충돌하는 성경을 불신하고 결국 배교를 선택한다. 우리는 마이어의 과학적 설명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결코 과학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 영역에서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

셋째, 우리는 변증을 훈련할 수 있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이론과 궤변을 알면, 그 대

답을 준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우주와 만물의 법칙, 생물을 만들고 기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을 과학으로 측정하고 가능할 때, 우리는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찬양하고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입술과 삶의 제물로 돌려드릴 수 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과학의 영역에서도 그렇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을 비추기가 힘들다. 부패할수록 소금의 맛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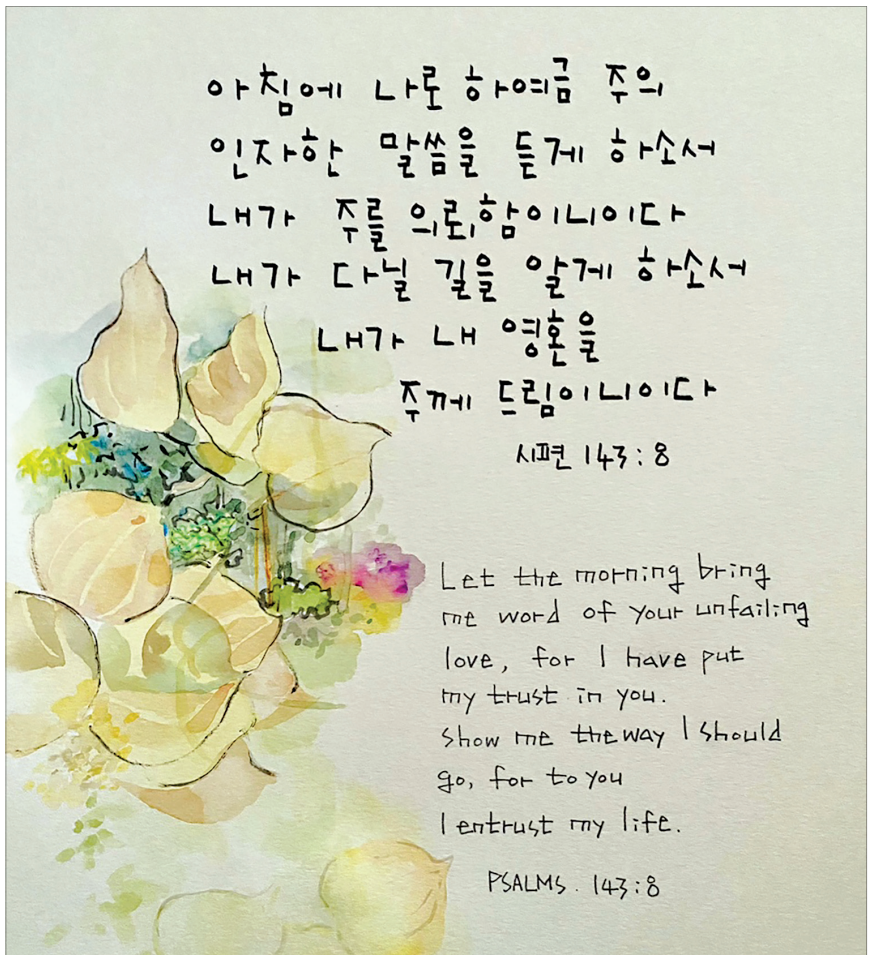
하지만 이 싸움을 멈추지 마라. 당신의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은 올바른 곳에서 있다. 지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밝혔(그는 당시 생물학자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초목, 짐승, 새,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에 대해 분류했다. 왕상 4:31-34).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나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존재한다(명령들). 그러므로 도덕(선악)이 있으며, 진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기준대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조정희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프로그램 구성:

1년차

설교
[Preaching]

2년차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

3년차

리더십
[Leadership]

교수진


클린턴 아놀드 교수
Dr. Clint E. Arnold


도널드 스누키안 교수
Dr. Don Sunukjian


존 코 교수
Dr. John Coe


에디 변 교수
Dr. Eddie Byun

초청 강사진


줄리어스 김
Julius Kim


김한요 목사
Bryan Kim


강준민 목사
Choon-Min Kang


권혁빈 목사
Hyuk Been Kwon


권준 목사
James Kwon


이규현 목사
Gyu Hyun Lee

- 신입생 모집 -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한 바이올라 대학교 소속 탈봇신학교에서 2023년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을 새롭게 런칭합니다.

원서접수	2022년 11월 1일 마감
지원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 인가 받은 신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 학위 (신학석사ThM, 목회학석사MDiv, 문학석사MA) - 졸업 평점평균 3.0 이상 (4.0 기준) - 목회경력 : 3년 이상의 목회 경력이 있는 자 (부목사 지원 가능)
수업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차 : 2023년 5월 29일 - 6월 9일 (2주) - 2년차 : 2024년 5월 27일 - 6월 7일 (2주) - 3년차 : 2025년 6월 2일 - 6월 13일 (2주)
수업장소	미국 캘리포니아 탈봇신학교 캠퍼스

입학문의: * 한국어 상담 가능

전화: +1 (562) 903 4705 (미국)

웹사이트: <https://www.biola.edu/doctor-of-ministry-korean-track>

이메일: talbot.korean.dmin@biola.edu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2)

<재벌집 막내아들>, 기독교 관점에서 비판한다면

대중문화 속 엇보이는 극단적 권리 지향 세대 근래 재벌들, 사회적 계층이동 통로 역할 포기 실망한 대중, 재벌과 기득권층 응징 작품 호응 이런 태도, 재물과 권력 의미 설정 실패서 나와

◆재벌에 대한 반감: 사회적 계층이동 마감 시대의 자화상

JTBC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이 서사의 도입부를 벗어나 본격적 전개 단계에 들어서면서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총 16회 에피소드 가운데 6회까지 방영된 상황에서 종편 드라마로 전국 시청률 11-12%대를 기록하면서 향후 케이블과 종편 드라마 부문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장르소설의 전형적 흥행공식이라 할 수 있는 만능형 주인공의 활약을 바탕으로 시청자의 카타르시스를 극대화한다. 송중기·이성민 등 흥행력을 갖춘 연기자들의 열연 또한 돋보인다.

아울러 최근 한국 드라마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고 있는 '악랄하고 부도덕한 재벌'에 대한 응징을 내세우며, 경제적 정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자극한다. 한 마디로 흥행에 필요한 요소는 전부 갖춘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을 비롯해 재벌 및 권력자들에 대한 응징을 주제로 삼는 드라마들이 인기를 얻는 현재 상황은 최근 크게 달라진 세간의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이 계속 성장하던 얼마 전까지, 재벌이나 사회 지도층이 누리던 막대한 부와 권력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는 일반인에게도 접근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아직은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희망이 살아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희망은 여(女) 성향 드라마 속에서, 주로 재벌가 후손과의 사랑과 결혼이라는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형태로 표현되곤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견인했던 인구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현재 서민들의 사회적 계층이동에 대한 기대감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상황이다. 그리고 이렇게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막혀버린 상황에서 대두되는 정서는 기득권층에 대한 깊은 반감과 피해의식이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뒤흔든 진보, 좌파 계열 정치성향에 대한 호응,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현재의 젊은 청년 세대가 진보, 좌파 계열에 대해 보이는 환멸과 반감 모두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막아버린 기득권층에 대한 반감과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벌 가문이 한국 사회

전반에서 공공의 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과거 재벌 기업집단들은 국내 고용을 주도하면서 부의 순환을 이끄는 주역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근래 들어 재벌 기업집단들은 국내에서의 생산 기반과 고용을 급격히 축소시켜, 부의 순환을 담당하고 사회적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는 역할을 포기해 버린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경제력 성장 및 팽창 시기가 끝을 맞이하면서, 재벌들이 깊어져야 할 사회적 의무를 포기한 채 가문의 치부에만 집중하고, 이런 모습에 실망한 대중이 재벌과 기득권층을 응징하는 드라마에 호응하는 것이 현재 대중문화계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이런 태도는 우리 삶에서 재물과 권력이 갖는 의미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데 실패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태도 안에는 권리와 책임이 갖는 가치 설정 방식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된다.

◆현실에 대한 반감: 권리지향적 사고방식의 극단화와 책임의 망각

우리 사회는 서구로부터 극단화된 권리지향적 사고방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있는 중이다. 서구에서 권리지향적 사고방식의 기원은 근대 계몽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계몽주의 인간 이해를 대표하는 천부인권 사상은 특정한 권리들에 대한 보장을 당연시하도록 가르친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 종교나 사상에 대한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19세기까지 이 권리지향적 천부인권 사상은 인간 현실의 '객관적이고 상호적인' 영역을 인정했다. 즉 특정한 권리들에 대한 보장은 무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의 현실에 맞춰 어느 정도 객관적인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런 권리 보장에는 상호성이 있어 자신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반드시 그에 비등한 수준으로 타인에 대해 깊어져야 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실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는 객관적이고 상호적인 삶의 방식보다는 개별화된 삶의 방식을 앞세웠다.



보장받지 못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분노의 심정을 반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실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의 원래 내용은 인간 각자가 타자와 함께 나누는 관계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지만, 정치계와 대중문화는 이를 통속화하고 단순화해서 개별화를 극단적으로 추종하는 방향으로 왜곡해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권리지향적 인간 이해 역시 극단화되어 개개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발전했고, 이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지극히 비현실적인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동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즉 개인이 얼마만큼 자신의 삶에 성실함을 가지고 임했는가 헤아리기 전에 지금 당장 각자에게 보장되지 못한 권리를 따져보고 분노하라는 메시지가 정치적이고 문화적인 선동에 힘입어 현재의 시대정신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성장이 멈춰버린 사회구조에 대한 커다란 상실감, 그리고 그런 사회구조 속에서 기득권의 최상위를 차지하는 재벌들에 대한 분노의 이면에는 내가 누리지 못한 나의 권리와 이득에 대한 맹목적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대중문화계는 이러한 심리를 이용해 재벌들을 반사회적이고 악독한 냉혈한으로 설정하고, 그들이 누리는 부, 권력, 그리고 쾌락을 영악하게 탈취하는 소시민 출신 주인공을 영웅시하는 서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린 재벌들의 실망스러운 행태를 변호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재벌들의 이미지를 극단화해서 거기에 피해의식과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 또한 올바른 자화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애초 기독교 신앙은 세속의 부와 재물이 주는 쾌락에 빠져 신앙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크게 경계한다. 그리고 각자 삶의 현실을 돌

아볼 때 보장받아야 할 권리 대신에 인간으로서 당연히 깊어져야 할 책임에 우선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이 책임은 하나님의 존중을 받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신구약의 계명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복잡하고도 막중한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삶의 자세를 지닌 이들은 개개인의 권리의 보장, 그 가운데서도 개개인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권리의 보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오히려 비현실적인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태도는 기독교적 관점으로 볼 때 허망함에 집착하는 추태로 비춰질 뿐이다.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 신앙과 문화가 갖는 긍정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은 권리 지향의 세대 속에서 의무와 책임을 질 기회를 빼앗겨버린 젊은이들이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가벼운 쾌락만 좇아다니며 사는 세태를 애석한 심정으로 진단한 바 있다.

<재벌집 막내아들>의 서사 속에는 이처럼 자기 권리에만 천착하며 무조건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맹목적으로 분노하는 허망한 욕망의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심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계명에 순종할 책임을 삶의 우선적 지침으로 삼는 기독교적 태도가 어리석고 무모한 것으로 규정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재벌집 막내아들>의 주제와 서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속에서 확인되는 사적 욕망과 관련된 권리에 집착하는 정서는 계명 순종의 책임을 삶의 최우선 지침으로 삼는 기독교 신앙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관리원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부터 시작

매직 스테이트

\$150 부터 시작

*단, 칼라만 하시면 \$40부터 시작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 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 금요일 10:00 AM ~ 7:00 PM 토요일 09:00 AM ~ 6:00 PM

Tel: 213-739-1022



오다가 주웠어

KIDOK SHOP

단체선물 특가전

쿠폰 70% OFF



www.kidokshop.com

기독샵 바로가기

Step 1. 핸드폰 카메라 앱 켜기
Step 2. 좌측 QR코드 스캔



단체선물 기획

1.



퀸센스 6종 프리미엄 칼세트

10세트부터

~~\$369.90~~ \$150

PRICE FOR 10 SETS



단체선물 기획

2.

PLAN 36.5 퍼퓸드 핸드크림 리미티드 에디션 세트



20세트부터

~~\$300~~ \$130

PRICE FOR 20 SETS



BEST SELLER

리비스타 어깨 밸런스 밴드

등이 퍼지면 인생도 퍼진다

두껍고 둔탁하게 입지 말고 무봉제 기술로 얇고 가볍게!

할인에 무료 배송까지

~~\$45~~ \$38



어깨를 중심으로 등과 허리까지

단체선물 주문문의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간편하게-

1:1 카카오톡 채널 실시간 상담!



스캔하고 상담하기!

전화 상담
213-235-6663

